

1. 오미야 분재 마을의 역사

‘분재’는 역사 깊은 예술형식으로 특히 일본에서는 20 세기 초부터 서서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분재 장인들은 분재 재배에 적합한 넓고 큰 땅을 찾았습니다. 당시 도쿄는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해 만연한 공해로 인해 섬세한 ‘살아있는 예술품’을 즐기기에는 적절치 않은 환경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사이타마현 오미야는 1885 년 오미야 공원 개원 후 많은 사람에게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분재 장인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재원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같은 군락을 두기에는 오미야 교외의 광활한 땅을 가진 도로(土呂)가 최적의 장소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미야가 분재 재배지로 추천된 이유는 당시 빠르게 성장한 수도보다 공기가 맑고 양질의 지하수가 있어 분재 재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토양입니다. 과거 후지산의 분화로 발생한 퇴적물은 이 지역에 미네랄 함량이 적은 적토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토양에서는 어떤 식물이라도 건강하게 자라기에 분재 재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1923 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허허벌판이 된 후 많은 분재 장인은 점점 수도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이후 1925 년 오미야 분재 마을이 현재의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땅은 분재 재배의 번성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35곳이나 되는 분재원에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미야 분재 마을은 마을의 중요성을 지자체에서도 인정받아 1942 년 ‘본사이초(盆栽町)’라는 행정상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분재 문화는 일시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반사치 운동은 분재를 도락으로 간주했고, 많은 분재 장인이 전쟁에 징병되었습니다. 오미야 분재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분재원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몇 명의 용감한 분재 재배자들은 1945 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비밀리에 재배를 이어갔습니다.

전후 부흥과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일본의 모습과 나란히 오미야 분재 마을 및 분재 자체에 대한 인기와 가치도 높아지면서 당시 오미야 분재 마을은 ‘열정적인 기술자가 많은 마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미야의 분재 장인들은 일본 만국박람회와 세계분재대회를 통해 분재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소중히 길러진 분재는 희소가치가 높아 정치인과 사업가 등 부유층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올라가며 분재는 ‘BONSAI(분재의 일본어 발음)’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끝난 현재, 분재는 대중적인 취미에서 일부 애호가들이 즐기는 취미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변천을 거쳐 21 세기에 이르러서도, 오미야 분재 마을은 일본의 전통문화인 분재를 활기차며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예술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